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운영모델과 전략에 관한 연구*

-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

Facilitating Public Spheres in Public Libraries : Models and Strategies: Focusing on the Case of Seongbuk Public Libraries in Seoul

이 연 옥 (Yeon Ok Lee)**

강 영 아 (Young Ah Kang)***

< 목 차 >

I. 서 론

III. 결 론

II. 연구 결과

요 약: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 도서관 공론장의 운영모델과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론장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공론장 운영의 핵심 과정과 특성을 규명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공론장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사서 7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도서관 공론장 운영은 공론장 의제 선정, 자료개발, 정보서비스, 사전프로그램, 홍보, 공론장 진행, 사후프로그램이라는 순차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공론장은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서관 운영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접촉, 의사소통, 협력과 조정, 정보서비스 활동에서 지역사회 촉진자로서의 사서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전문 사서로서의 효능감이 향상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론장 운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현행 모형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공론장, 공공도서관, 도서관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models and strategies to facilitate the creation and effective use of public spheres in public libraries. 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 of public sphere initiatives conducted by Seongbuk Libraries in Seoul,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core processes and defining characteristics of public sphere facilitation and to propose strategi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librarians involved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sphere initiatives. The analysis identified that public sphere facilitation consist of sequential processes including agenda selection, material preparation, information services, pre-program activities, agenda promotion, program execution, and post-program activities. Furthermo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public spheres serve as initiatives to reorient library operations toward the community, to encourage participation from the community in library management, and to strengthen partnerships with community stakeholders. Additionally, the study found that librarians' roles as community facilitators—especially in community engagement,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were enhanced, leading to increased sense of efficacy in their professional roles. Lastly, a current model for for facilitating public spheres was presented as a reference, along with strategies for sustainable implementation.

KEYWORDS: Public Sphere, Public Libraries, Library Services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accesspt@pusan.ac.kr / ISNI 0000 0004 6487 2027) (제1저자, 교신저자)

*** 장위행북누림도서관 관장(kangyah@sbculture.or.kr / ISNI 0000 0005 0538 3669)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4년 11월 23일 • 최초심사: 2024년 12월 5일 • 게재확정: 2024년 12월 16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4), 311-337,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4.202412.311>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공공도서관은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보이용, 평생교육,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역할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역할 외에 공공도서관이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 전반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조명되고 있다. 지역의 커뮤니티를 구축할 잠재력이 있는 장소로서의 도서관 역할에 주목하거나(김윤정, 노영희, 2023; 이정호, 2012; Aabø & Audunson, 2012; Goulding, 2009; Johnston & Audunson, 2019; Leckie & Buschman, 2007), 이웃, 낯선 사람과 교류함으로써 계획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도서관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Aabø et al., 2010; Vårheim, 2007).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모임과 활동이 시민참여와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Goulding, 2004; Kranich, 2012; Willingham, 2008). 근래에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시민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에 주목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시민역량과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보고하였다(이연옥, 강영아, 2023; Alstad & Curry, 2003; Buschman, 2005).

특히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은 도서관 정책에 반영되어 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최근 공공도서관에 관한 법률과 지침을 개정하면서 공론장의 기능을 도서관 역할에 포함하였다(이연옥, 강영아, 장덕현, 2023). 이들 국가에서는 도서관이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시민 담론과 여론을 형성하는 장으로서 지역의 의제, 사회적·국가적·세계적 이슈에 대한 토의를 활성화하는 회합과 토론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Audunson, 2017).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정책의 세부 추진과제로 공론장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명시한 바 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의하면 ‘지역주민 네트워크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서관이 ‘주민 공론의 장’으로서 주민 공동의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환경으로 기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대통령소속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이처럼 국내외 공공도서관계에서 공론장으로서 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도서관계의 인식 또한 미흡하기에 관련 사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서관정책의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되었음에도 공론장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모델이나 지침의 부재로 도서관 현장에서 추진과제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사례

발굴을 비롯하여 도서관 현장을 지원하는 공론장 운영모델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 공론장을 실제 운영한 국내 사례에 주목하게 되었다.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이 운영한 ‘마을in수다’라는 이름의 공론장이 그 사례이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서울 성북구에서 설립한 15개의 도서관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74개의 공론장을 운영한 바 있다. 도서관 공론장 운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에 이들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론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운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 운영에서의 핵심 과정과 특징을 도출하여 모델로 제시하였으며, 성공적인 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운영모델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숙의와 토론, 민주주의 경험을 강화함으로써 도서관의 역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 문화의 발전으로 물리적 만남과 회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서로 다른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이 소멸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를 고려할 때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장의 부흥은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공론장(public sphere)은 공적 논쟁과 토의의 장으로, Habermas(1989)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그는 이를 ‘비판적 토론에 참여하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또한 공론장은 개인과 집단이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가능한 경우 공통 판단에 도달하는 담론의 공간으로 정의되고 있다(Hauser, 1999). Habermas(1989)는 그의 저서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공론장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상호 토론하고 참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논의하며 공론장의 효과적인 결과는 박식한 시민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론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도서관에 주목한 이들은 정보사회학자들이다. 특히 Webster(2014)는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영국 사회의 대표적 공론장으로 간주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은 모든 시민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며, 건전한 토론을 촉진하고 의견과 토론에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Buschman(2005)을 필두로 문헌정보학자들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사회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의미를 조명하며 도서관과 공론장의 관련성,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

해왔다(Alstad & Curry, 2003; Audunson, 2005). 아울러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공공 담론의 유형을 분석하며 도서관 공론장의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려는 실증적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Widdersheim & Koizumi, 2016; 2017).

국내의 도서관 공론장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연옥, 강영아(2023)의 연구와 이연옥, 강영아, 장덕현(2023)의 연구가 있다. 이연옥과 강영아(2023)는 도서관 공론장이 시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를 활성화하고, 토론을 통해 시민의 학습을 증대시키며,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지역사회와 주민의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와 의미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이연옥, 강영아, 장덕현(2023)은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 공론장이 지역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수준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도서관 공론장의 의미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도서관계의 인식이 미흡하며 도서관의 공론장 운영과 관련된 도서관계의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도서관 기능을 구현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도서관 현장을 지원하는 공론장 운영모델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운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의 운영과정을 체계화하고 성공적인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론장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도서관인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은 서울시 성북구라는 기초자치단체 산하 15개의 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북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표 1〉 참고).

〈표 1〉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현황

번호	도서관명	번호	도서관명	번호	도서관명
1	성북정보도서관	6	석관동미리내도서관	11	아리랑어린이도서관
2	아리랑도서관	7	달빛마루도서관	12	장위행복누림도서관
3	해오름도서관	8	정릉도서관	13	성북길빛도서관
4	종암동새날도서관	9	청수도서관	14	글빛도서관
5	서경로꿈마루도서관	10	월곡꿈그림도서관	15	오동숲속도서관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은 ‘마을in수다’라는 이름의 공론장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74개 운영하였으며, 참여 주민 수가 2,400명에 달한다. 기후 위기, 고령화 사회, 노동, 안전, 교육, 공동체, 동물권,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표 2〉

참고). 성북구립도서관은 8년간 74개의 공론장을 운영해왔기에 도서관 공론장 운영사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 운영을 체계화하고 운영 전략을 도출하는 것은 도서관 공론장 확산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 운영 현황(2016~2023)

연도	참여 도서관(기관) 수	공론장 수	의제	참가자 수
2016	8개 구립도서관 2개 도서관외 기관	10	갈등/도심 속 생태/혁신교육/나의 나이 들에 대하여/배려/생활 속 미세먼지, 이런 꿈 껴도 되나요?/교육 다이어트/불안/책읽기, 빛이 증헌디?	601
2017	5개 구립도서관	10	마을이 키우는 아이: 우리 아이는 마을에서 잘 자라고 있나요?/우리 마을 쓰레기 고민있습니까?/액션 라이브러리/당신은 종암동에서 고민이 있습니까?/청소년의 공간구성과 문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세대 소통 문화/종암동에서 행복을 찾는 다양한 방법은/시니어50+의 시간,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만나는 공간을 위하여/ 어디까지 가봤니?: 마을에 대한 오만가지 생각	336
2018	6개 구립도서관	6	슬기로운 노년생활/우리 집, 괜찮은 걸까?/내 삶에 변화를 준 모임: 지속성과 확장성에 대하여/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석관동마을학교' 함께 만들어볼까요?/어서와, 이런 동네 처음이지?/정릉 강아지 상륙작전	267
2019	5개 구립도서관	5	우리, 도시재생하면 잘 살 수 있나요?/디지털 시대에서 함께 살아남기/청소년공간이 필요해요, 왜?/일과 삶의 균형은 가능한가?/[]로 장위동에 산다는 것	293
2020	5개 구립도서관	22	당신에게 이웃은 필요합니까?/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쓰레기 문제, 마을에서 우리는?/관계-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왜'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는가?/ '따로 또 같이' 우리 잘 살고 있어요!/노임팩트 장위: 마을을 바꾸는 습관, 제로웨이스트 장위 함께 할까요?	215
2021	7개 구립도서관	7	기후위기는 공정하지 않다/기후위기, '우리'여서 할 수 있는 것/(지구를 지키는) 착한 소비는 가능한가?/청년 이웃 발견!/자원순환으로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그린, 꿈 그림"은 지속가능한가?/노임팩트 장위 내 삶을 바꾸는 소비	221
2022	7개 구립도서관	7	종암 안전모: 안전에 대한 모든 것/10년 후 석관동(feat.문화도시)/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중독/마을공동체, 환경을 고민하다/무해한 소비를 향하여/선배 시민/로봇의 시대 사람의 일이 궁금해요	240
2023	7개 구립도서관	7	성북정보도서관: 가족을 구성할 권리: 홀로, 그리고 함께 살기를 위한 다양한 상상/공유, Share의 너머/만려동물&마을살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놀이터가 없는 우리 동네, 우리에게는 놀 권리가 필요합니다	227
계	52	74		2,400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론장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사서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성북구립도서관 및 성북문화재단에서 발간한 공론장 운영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면담대상자는 공론장을 2회 이상 운영해본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공론장 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해온 핵심 운영자로부터 추천받아 1차 대상자를 확보하였고, 면담에 동의한 7명을 최종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면담대상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면담대상자 특성

구분	공론장 운영경력	사서 경력	1차	2차	면담 방법
A	8년	22년	2022.10.15.	2024.09.20.	1차 대면, 2차 서면
B	8년	23년	2022.10.21.	2024.09.21.	대면
C	7년	21년	2022.10.21.	2024.09.21.	대면
D	3년	11년	2022.11.23.	2024.09.20.	1차 서면, 2차 대면
E	5년	11년	2022.11.23.	-	서면
F	5년	12년	2022.11.20.	2024.09.18.	서면
G	2년	8년	-	2024.09.18.	서면

면담자료의 수집을 위한 개별 면담에 앞서 2022년 9월 24일에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관장 1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공론장 운영 경험에 대한 공유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질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면담에 참여한 추가 도서관장 1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 질문지가 확정되었다(〈표 4〉 참고).

〈표 4〉 면담 질문지의 구성

구분	내용
공론장 운영의 계기	- 운영 배경과 계기
공론장 준비	- 준비 과정 - 공론장 성격과 목적 - 사서의 기대
의제 선정	- 의제 선정과정 - 의제 선정 방법
의제 관련 정보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방법
공론장 홍보	- 공론장 홍보 방법
공론장 진행	- 진행 과정 - 진행 방법 - 개최 이후 후속 활동
공론장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점	- 어려움 - 개선 사항 - 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면담자료의 수집은 2회에 걸쳐 수행되었다. 1차 면담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2차 면담은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면담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대면 면담 및 온라인 면담, 서면 면담이 진행되었다. 1차 면담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된 공론장 운영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였으며, 2차 면담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공론장 운영 경험을 조사하고, 1차 면담 내용 중 확인과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하였다. 면대면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면담은 녹화하였으며, 오프라인 면담은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추후 텍스트로 전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질적 분석 도구인 QSR Nvivo를 활용하였으며 크게 공론장 운영 과정과 운영 특성이라는 2개의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공론장 운영과정은 공론장 운영의 주요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운영 배경’, ‘사전 준비’, ‘의제 선정’, ‘의제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제공과 공론장 홍보’, ‘당일 공론장 개최’, ‘사후프로그램’이 도출되었다. 공론장 운영 특성에 대한 분석은 구, 문장 단위로 개념을 추출하고 코딩하여 주요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공론장 운영 특성에서 발견되는 주요 범주와 노드 수는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노드 수 28), ‘도서관 운영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활성화’(노드 수 18), ‘지역사회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 수행’(노드 수 25), ‘역량 개발을 통한 전문사서로서의 효능감 상승’(노드 수 26), ‘한계와 어려움’(노드 수 2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 참고).

〈표 5〉 공론장 운영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의 주요 범주

영역	세부 과정 및 주요 범주	내용
공론장 운영과정	운영 배경	- 운영 배경 및 계기
	사전 준비	- 사서의 사전학습 - 공론장 성격과 목적 - 사서의 기대
	의제 선정	- 의제 선정과정과 방법 - 의제 선정에서의 협력 - 의제 유형
	의제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제공과 공론장 홍보	- 자료개발 - 정보서비스 개발과 제공 - 사전프로그램 유형과 방법 - 의제 및 공론장 홍보 - 홍보를 위한 협력
	당일 공론장 개최	- 진행 과정 - 진행 방법
	사후프로그램	- 후속 활동
공론장 운영 특성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 지역사회 요구 파악 - 사서의 시선이 도서관 내부에서 외부로 - 도서관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대
	도서관 운영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활성화	- 지역 네트워크와 협의와 조정 -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강화
	지역사회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 수행	- 주민 연결과 만남 - 학습과 대화 촉진 - 문제해결 지원
	역량 개발을 통한 전문사서로서의 효능감 상승	- 커뮤니케이션, 협력, 조정 능력 - 사서 학습과 성장 - 정보서비스 제공력
	한계와 어려움	- 기존 사업과 다름 - 시간 부족 및 업무량 증대 - 개별 사서 역량에 의존 - 교육과 매뉴얼의 부재

II. 연구 결과

1. 도서관 공론장 운영과정과 특성

가. 운영과정

(1) 운영 배경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도서관 공론장 ‘마을in수다’는 성북구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적 기조를 도서관서비스로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2016년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중심이 된 의사 결정과 협치, 주민 조직의 생성과 운영을 통한 민관 협치, 마을 단위의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컸다. 당시 성북구의 정책 기조는 ‘주민자치 역량으로 생활, 골목, 마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복원’이었다(김주영, 조다희, 최찬란, 2020; 성북문화재단, 2016). 도서관은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기조를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이 공론장을 운영하게 된 직접적 동인은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관심과 요청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구청장이 공론장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공론장은 외부로부터 요청되었으며 도서관이 먼저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민선 6기인 김영배 구청장이 도서관에서 주민포럼과 같은 공론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당시 지역에서 마을 민주주의, 지역공동체와 같은 내용이 이슈였고, 구청에 마을 민주주의과가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 내 상황, 구청장의 의지가 맞물려 성북구립도서관 사서들이 공론장 운영을 고민하게 되었다(사서 A).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한 출발이라 상위 기관인 구청과 문화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동반되었다. 성북구립도서관 사서들은 당시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서관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으고 연결하며 주민 토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에 고무되었으며, 상위 기관의 관심과 지지 분위기가 공론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사서 B). 또한 일부 사서는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시민 학습의 장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도서관이 공론장을 운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강한 기대감을 가졌다고 하였다(사서 A, C, D).

(2) 사전 준비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은 상위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의 요구와 정책적 기조를 도서관이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론장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나, 도서관 내부에서는 이 사업을 도서

관이 왜 해야 하는지, 도서관의 기존 서비스와 성격이 다른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도서관과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문하게 된다. 도서관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비롯한 사업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사서들은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학습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사서들은 공론장을 업무로 위임받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사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사서 B). 이와 함께 사서들은 도서관이 운영하는 공론장은 어떤 성격이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토의하며 그 실체를 만들어갔다.

처음 사서들은 공론장이 뭔지 몰라 걱정이 많았다. 공론장이라고 하니 TV 토론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이것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다. 도서관의 공론장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고민했었다. 이 사업을 하기로 한 사서들과 함께 공론장을 운영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회의를 계속 했다(사서 A).

사서들은 도서관 공론장 운영을 위한 TF팀이 조직되기 전부터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공론장 사업을 추진할지 논의했으며, 공론장을 추진하는 도서관별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이 조직된 이후에는 담당 사서들이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며 도서관 공론장의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면서 내용과 형식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사업 초기 사서들은 도서관의 기존 역할과의 연계나 확대에 방점을 두고 공론장의 성격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첫째, 기존 독서회의 기능 확대, 둘째,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실현과 확대, 셋째,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 실현에 초점을 두고 도서관 공론장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서들은 도서관 공론장을 기존 도서관 독서회의 의미와 기능, 운영 경험을 조명하며 이를 보다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독서회의 토의 주제를 주민과 지역사회의 일상적 고민과 문제로 확장하며, 책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참여자 수에 있어서는 독서회보다는 규모가 큰 주민 토론회의 형태로 공론장을 설정하였다.

처음에 공론장을 독서회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독서회 참여자들은 동일 주제에 대해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내어 경청하며,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공론장도 유사한 형태로 생각했다. 다만 독서회는 참여자들이 책을 읽어야 하기에 책 자체가 시민들에게 높은 장벽이 된다. 우리가 운영해 온 독서회의 참여자 수와 규모를 키우고, 또 책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공론장을 생각했다(사서 C).

또한, 사서들은 주민의 대화와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지역주민 간의 정보공유를 공론장의 방향과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공론 주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학습, 토론을 촉진하며 공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를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 사서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사서 B, D, F). 공론장 운영에서 정보서비스에 주력하고자 한 것은 무엇보다 지역 사회 정보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구현하고 시민들이 사서의 전문적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가 강했다. 성북구립도서관 사서들은 의제 관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정보 플랫폼’로서 도서관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싶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성북구립도서관, 2017).

이에 더해, 사서들은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의제를 중심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토의함으로써 도서관을 지역 커뮤니티센터로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하나의 의제에 대해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에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소통의 거점이 되고, 그 과정에서 도서관과 주민 간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될 것’(사서 E)이라고 보았으며, 공론장이 주민의 만남과 소통, 지역 소식을 공유하는 중심지로 기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 같은 사서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북구립도서관은 공론장을 지역사회와 개인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고민에서 공동의 관심사와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의제화하여 주민토론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도서관이 의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론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성북문화재단, 2016).

(3) 의제 선정

공론장을 운영하기로 한 사서들이 첫 번째로 마주한 고민은 ‘어떤 주제로 공론장을 준비할 것인가’였다. 사서들은 공론장 주제가 다양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참여를 이끌 수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사서들은 ‘주민이 알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사서 A). 그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고민과 관심, 지역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공론장의 주요 의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는 방식은 도서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황과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고민과 관심사를 알아내기 위해 사서들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다.

3개월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을 만났다. 주민들이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서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4~50명 이상을 만났으며 이야기 나눈 내용을 기록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주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사서 B).

이처럼 주민을 직접 만나 현안을 파악하는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실제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과의 면담을 수행하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서들은 지역으로 직접 나가 설문하였으며, 설문을 직접 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는 면담하였다.

또한 일반 주민들로부터 의제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도서관은 주민 공고를 통해 의제 수렴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이 가장 많이 제안한 주제를 의제로 선정하였다. 사서 C는 주민 참여를 통해 의제가 설정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2021년도에 공고를 통해 일반주민들로부터 의제 제안을 받았고, 가장 많이 제안한 의제를 선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기후 위기'다. 2022년도에 청소년특화도서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띤 '독(讀)한 친구들'이라는 청소년 서포터즈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의제를 정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의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청소년에 의해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의제가 선정되었다(사서 C).

이에 더해, 사서들은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발로 뚫은 사서들의 경험을 다음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서들이 지역의 카페 사장님, 기업 대표자, 장애인복지관 기관장, 실버복지센터 운영자, 극장 대표, 지역 예술가, 학교장에게 찾아가 '도서관에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보는 모임'을 해보자고 권하고 이들을 도서관으로 불러 모았다(사서 A).

우리 도서관은 마을로 나가 직접 지역을 조사하였다. 민관학으로 리스트를 정리해보니 48개 기관이 있었다. 이들 단체에 연락하여 면담을 요청했는데 도서관이 기관에 면담을 요청한 것에 의아해했다. 도서관에 우리 마을의 이슈를 함께 이야기하는 테이블을 구성하려 한다며 참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주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사서 B).

이렇게 해서 각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복지관,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독서회, 주민자치회, 돌봄 시설 등의 다양한 기관을 비롯하여 예술가, 상인, 소셜디자이너, 교사, 어린이집 원장, 동장, 시민단체 회원, 대학생, 출판사 편집자, 독서회회원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었다. 구축된 지역 네트워크는 도서관이 지역 현안과 상황을 파악하는 창구이면서, 공론장의 주요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조정하는 협의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서들은 정기적인 네트워크 모임을 개최하여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한 공유를 촉진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며, 공론장 사업에 대한 협력과 홍보 등에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재 도서관 공론장의 의제 선정은 모든 도서관이 동일한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각 도서관의 환경, 지역사회의 상황, 세대별 요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4개의 공론장이 열렸으며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시민 담론은 크게 ‘일상생활에서 개별 주민의 고민과 관심’, ‘지역사회의 현안’, ‘사회적 이슈’로 유형화된다(〈표 6〉 참고).

〈표 6〉 공론장 담론 유형

유형	주제
일상에서의 고민과 관심	인간관계의 갈등, 에티켓, 나이듦, 청소년 진로교육, 불안감, 책읽기, 노년생활, 청년의 삶, 행복하게 살아가기
지역사회 현안	도시 속 생태, 골목 쓰레기, 지역도서관의 역할, 청소년 공간 조성,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반려동물 관리, 도시재생, 이웃과 함께 살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어린이의 놀 권리, 문화도시 만들기
사회적 이슈	교육 문제, 세대 소통, 환경오염, 일과 삶의 균형, 착한 소비, 기후 위기, 자원순환, 스마트폰 중독, 고령화 사회, 디지털 기술의 발전, 가족제도의 변화, 사회적 고립

(4) 의제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제공과 공론장 홍보

의제 설정 이후 사서들은 의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주민들이 활발하게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개발과 정보제공, 사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동시에 도서관 공론장과 의제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가) 자료개발과 정보서비스

의제 관련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은 의제 선정과정에서부터 이뤄진다. 의제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네트워크와 협의하는 경우, 지역 현안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때나 여러 가지 의제가 제안되어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제 설정을 지원한다. 의제가 설정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 대상으로 공론장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 사서들은 무엇보다 의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점에 주력한다.

도서관과 책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쉬우나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 자료가 주민들

에게 어렵지 않아야겠다는 점을 고려했고, 또 주민들이 의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사전강의와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생각했다(사서 B).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사서들은 의제를 지원하는 자료전문가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사서들은 의제에 대한 사전 조사와 학습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의제와 관련한 주민 고민의 배경, 맥락과 상황, 주민의 이해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자료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내용에서 이와 관련한 사서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의제는 늘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사서가 학습하여 기획해야 한다. 의제와 관련한 어떤 포인트들을 잘 찾아야 한다. 이용자에게 ‘이것도 읽어보세요, 저것도 읽어보세요’ 자료를 다 던질 수는 없지 않은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자료조사를 통해 의제와 관련한 현황과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내가 기본지식이 있어야 이 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것을 조사해야 하는지 가능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제의 개념이나 층위를 알아내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읽을거리가 되는 단행본을 개발하고 있다(사서 C).

노인고립이라는 의제가 있다면 이 의제가 정해진 이유와 맥락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공동체 연대라는 입장에서 노인고립을 바라볼 수도 있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노인고립을 바라볼 수도 있기에 이 의제를 설정하게 된 배경과 상황, 이유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주제가 도출된 배경이 지역사회에서 노인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돌봄 문제로 제기되었고 관련 토론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게 된다(사서 A).

이렇게 의제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된 자료들은 하나의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도서관에서 배열되고 전시된다. 의제가 지역 현안일 경우 지역 정보와 다른 지역의 관련 사례를 포함하며, 사회적인 이슈의 경우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담긴 신문 기사, 영상물, 통계, 논문, 단행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서들은 기존 자료의 선정과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소개하고 안내하거나, 책 읽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주민을 위해 책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꼭 읽었으면 하면 특정 페이지나 구절을 추출해서 안내하는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서들의 손을 거쳐 개발된 자료들은 도서관에 전시되어 주민들의 관심과 질문이 생기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실제 공론장이 개최될 때 참여자들에게 제공되어 토론 참여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여 토론을 촉진하게 된다. 2021년부터는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물음표와 느낌표’라는 게시판 만들어 매년 각 도서관이 공론장을 진행하면서 제공한 정보자료와

의제 선정과정에 활용한 자료를 축적하며 안내하고 있다.

(나) 사전프로그램의 운영

도서관은 공론장이 운영되기 전에 주민들이 공론 의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의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의제의 유형에 따라 견학, 워크숍, 작가와의 만남, 강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의제가 지역 현안일 경우 실제로 참고할 만한 현장을 찾아가는 견학이나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해당 의제에 대한 공론이 필요함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테면,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공론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주민들이 직접 골목의 쓰레기 문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쓰레기 재활용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사서 A). 사회적 이슈가 의제일 경우 강좌나 작가와의 만남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사전학습을 통해 의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에 독서회와 동아리를 활용하여 의제와 관련한 도서를 읽고 의견을 나누어 봄으로써 참여 시민들이 의제에 대한 사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서 E).

(다) 공론장과 의제에 대한 홍보

동시에 사서들은 최종 선정된 의제와 공론장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폭넓게 활동한다. 사서가 지역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여 의제가 제안된 배경을 설명하고 시민들로부터 의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문을 받는 활동을 하였고,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리나 기관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의제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서 D, E).

(5) 도서관 공론장 개최

도서관 공론장은 보통 2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사서들은 이 시간 동안 시민 참여자들이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공론장에 사회자와 발제자와 전문가를 배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의제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을 사회자로 섭외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기도 하는데 다음 면담에서 관련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자의 경우 의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고 의제의 선정과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지역 현안이 의제로 선정된 공론장에서는 지역사회를 잘 알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발언을 끌어내는 사람을 사회자로 섭외하였고 ‘기후 위기’, ‘디지털 기술의 확대’와 같은 전 지구적인 이슈에 대한 공론이 이루어질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시민단체 활동가가 사회를 맡아 주민들의 의견과 질문을 중재하며, 공론장에서 오가는 정보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다(사서 A).

한편, 공론장에서는 토론에 앞서 의제에 대한 참여 시민들의 경험과 생각을 환기하고, 발언을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의제에 대해 개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테면 의제의 선정 배경, 핵심 키워드, 관련 자료 소개 등을 담아 사전에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는 시간을 갖거나, 공론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책의 일부 내용을 낭독하기도 한다. 또 발제자를 섭외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발제는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에게 역할을 부여하였으나 주민을 발제자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착되고 있다. 사서 B는 지역주민이 공론장의 발제자로 정착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주민 발제가 정착되기 전에 전문가가 발제자가 되어 전문가의 생각을 5~7분 정도 말하게 한 적이 있다. 전문가가 먼저 이야기하면 벽이 높아져 주민의 발언 참여가 잘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 이를 지양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발제자로 나서 주민의 경험과 느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주민들이 쉽게 이야기에 참여하게 된다(사서 B).

이처럼 사서들은 무엇보다 주민 발언이 활성화되는 데 초점을 두고 시민 발제자를 확보하여 참여한 주민들이 말문을 쉽게 열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시민 발제자 섭외를 위해 의제와 직접 관련 있는 당사자를 발굴하는 데 치중한다. 이를테면 ‘기후 위기’가 의제인 경우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의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복지관에서 받은 경험이 있는 노년의 어르신을 발굴하였으며, ‘사회적 고립’이 주제였을 때는 고립 가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지역의 복지관 담당자를 발제자로 섭외하였다. 사서들은 지역 내 인적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제와 관련하여 경험을 해보았거나 고민을 해봤던 지역주민을 찾아 발제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사, 직장인, 극장 운영자, 외국인 주민, 가정주부, 학생, 미술가, 도서관 옆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는 주민 등 다양한 주민들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성북구립도서관, 2022). 이들 시민 발제자는 의제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1페이지 내외의 길이로 준비하고 발표함으로써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한편, 공론장에서 주민 발언만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에 한계가 있기에 공론장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공론장이 개최되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시민들의 토론을 활발하게 이끌기에는 제한이 있어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민 토론의 질을 높여내고 시민의 배움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참여 전문가에게는 ‘시민 토론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사서 A). 의제에 따라 상반된 경험과 입장을 가진 복수의 전문가를 섭외하기도 하고 의제 관련 현장 전문가, 저자나 연구자를 전문가로 구성하기도 한다. 특히 ‘전문가에게는 강의와 같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참여 시민의 발언을 토대로 토론을 풍성하게 만들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사서 B).

(6) 사후프로그램

성북구립도서관은 공론장을 개최한 이후에 후속 작업으로 프로그램이나 주민 모임 결성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은 의제의 유형이나 성격, 지역사회에서의 주목도,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후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을 계획한다. 공론장에서 논의된 내용과 연계된 체험, 독서 소모임, 특강, 워크숍, 토론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청년의 삶'을 주제로 한 공론장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도서관은 이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마을 탐방 및 독서 모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사서 D).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공론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없이 3시간을 도서관에서 함께 보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사서 C). 기후 위기를 주제로 소비 문제를 다룬 공론장에서는 사후에 주제 도서 독서회,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프로그램 등이 전개되었다. 또한 '지역 내 청소년 공간 문제' 공론장에서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건축과 공간에 대한 인문학 특강이 운영되었다(사서 C).

이상 사서의 공론장 운영 경험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도서관 공론장 운영은 공론장 의제 선정, 자료개발, 정보서비스, 사전프로그램, 홍보, 공론장 진행, 사후프로그램이라는 순차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도서관 공론장 운영의 특성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 운영에서 확인되는 주요 특성은 1)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2) 도서관 운영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활성화, 3) 지역사회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 수행, 4) 역량 개발을 통한 전문 사서로서의 효능감 상승, 5) 한계와 어려움으로 도출되었다.

(1)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도서관 공론장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관심을 의제로 선정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사서들은 공론장 의제를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공론장 의제 발굴을 위해 사서들은 지역으로 나가 주민의 관심과 문제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사서들은 주민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지역의 정보를 얻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러한 경험은 사서들이 지역사회에서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의미를 자각하고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도서관 내부에만 있었는데 공론장 사업을 위해 도서관 외부로,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야 했다. 공론장의 의제를 탐색하기 위해 지역사회로 나가 지역과 지역의 현안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주민과 밀접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사서 B)

사서들은 공론장 의제를 찾기 위해 도서관 바깥인 지역사회로 나가면서 도서관에 오는 주민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서비스하는 것이 사서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으로 나간 것은 도서관과 사서의 본연의 역할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하였다(사서 A, C).

도서관 운영에서 사서의 시선이 도서관 내부에서 도서관 바깥인 지역사회로 확장되자 사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으로 나가 지역사회와 도서관의 접점을 만드는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지역의 민간단체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동네 청년 모임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소모임에 참여’(사서 D)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 행사에 도서관 부스를 설치하여 다양한 연령의 지역주민을 만나 대응하는’(사서 E) 등 도서관과 사서의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대되었다.

(2) 도서관 운영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활성화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 사업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과는 달리 의제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 요구조사, 의제 설정, 공론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전프로그램 운영과 정보제공, 공론장의 개최, 공론장 개최 이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도서관이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지만 각각의 과정을 지역주민과 단체, 지역 네트워크와 협의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양상을 띠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사서 C는 성북구가 지역의 단체와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며 도서관 공론장 운영에서도 거버넌스 방식이 작동되었다고 하였다.

성북구에서는 지역 단체와 주민과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공하고 평가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도서관 공론장 운영도 누군가 제공하고 누군가는 받기만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과 같이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의 경험치를 쌓고 있다(사서 C).

이처럼 공론장의 기획 및 운영과정에 지역주민과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공론장의 의제 설정에서 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조정하는 협력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도서관이 일방적으로 의제를 정하여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구축하였던 지역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나 시민이 의제 설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도서관 사서들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의제와 관련한 토론 내용과 수준 등 토론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한다(사서 C, F).

또한 의제의 주제와 관련된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공론장을 운영한 사례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주제로 한 공론장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어르신 1:1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였고, ‘청소년 공간’이 주제였을 때는 성북구에 청소년 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성된 주민 모임과

협력하였으며, ‘고령사회’가 주제인 경우에는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사서 A).

사서들은 도서관이 구축한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론장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회의나 전화 통화를 통한 요청과 조율 등으로 사서의 업무강도를 높이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여 힘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제 선정, 의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 고조, 공론장 홍보, 공론장에 대한 주민참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기에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였다(사서 A, C). 이처럼 도서관 공론장은 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협의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적 특성이 강하며, 이러한 운영 특성은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3) 지역사회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 수행

도서관은 공론장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주민을 연결하여 대화와 학습, 시민참여를 고무시킴으로써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공론장 사업에 대한 사서들의 평가 및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서 E는 공론장 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공론화하는 것이기에 지역 커뮤니케이션 중심지로서의 도서관 역할이 강화된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또 사서 A는 ‘사서가 마을 주민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고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진 주민을 도서관으로 초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민의 만남과 소통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서 B는 지역사회 이슈가 주제인 공론장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줌으로써, 주민 스스로 실천 방안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보고했다. 즉 도서관을 통해 시민이 지역 문제해결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사서 F와 C는 도서관이 구축한 지역 네트워크 회의와 공론장에서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사서 역할이 자연스럽게 수행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혁신 교육’에 대해 공론장을 열었을 때, 참여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공론장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사람, 정보’가 필요할 땐 도서관을 찾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사서 F).

지역 네트워크 회의를 운영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물어볼 일이 있으면 도서관으로 연락이 많이 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곳 있어요?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사람 아세요?’ 등 도서관으로 문의가 많이 왔다. 사서들은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소개도 많이 해주었다(사서 C).

이와 같은 사서 증언과 경험에서 사서가 정보제공 역할을 넘어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시민을 연결하고,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역량 개발을 통한 전문 사서로서의 효능감 향상

도서관 공론장 운영에는 사서들의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론장 사업은 공공도서관이 기존에 해왔던 서비스와 성격이 다르기에 운영과정에서 사서의 준비와 학습, 역량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사서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지역사회 요구와 문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서 C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이니깐 지역을 잘 이해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는 개입하고,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사서 C).

또한 사서들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피력한다(사서 A, E, F). 공론장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만나 대화하며 요구를 파악하는 단계,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단체의 상황과 요구를 파악하는 단계, 의제를 지역주민에 맞게 조정하고 협의하여 최종 설정하는 단계,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가진 참여 주민들이 소통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하는 마지막 공론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앞서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 활동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서관 공론장은 지역사회의 단체, 기관, 조직, 전문가 등을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공론장 운영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이끄는 네트워킹 역량을 필요로 한다. 사서가 '도서관 안에서 이용자와 접촉하는 것에서 도서관 바깥인 지역사회로 나가 대외적인 접촉과 관계를 만들어가며'(사서 C) 지역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공론장에서 다룰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 이슈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만한 주제가 무엇인지 발굴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주제와 관련한 주민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학습과 준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론장에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다루기에 특정 주민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사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사서 A, E).

이러한 역량들은 공론장 운영을 위한 사서의 학습과 준비, 그리고 운영 경험의 축적을 통해

개발되어졌으며, 역량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서가 전문가로서의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서 A는 주민들에게 ‘사서가 전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공론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지역의 정보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는 자료를 개발하고 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하면서 ‘전문가로서 사서 역할에 대해 할 말이 생기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사서 F는 ‘이용자에게 사서가 바코드만 찍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동네에서 신뢰받게 되었고, 사서라는 정체성으로 지역의 많은 모임에 초대받고 있다’(사서 D)거나 ‘도서관이 뜻있는 일을 한다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동의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사서 A)는 보고를 통해 사서들의 직업적 성취를 엿볼 수 있다. 공론장과 공론장을 지원하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험이 사서의 전문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여냈고, 그 결과 사서 스스로도 전문가로서의 효능감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지역주민의 반응은 자료수집과 관리 이외에 주민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력, 지역사회 네트워킹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공론장 운영과 관련한 사서의 역량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다 고무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사서 D, E, F).

(5) 한계와 어려움

사서들은 공론장 사업이 기존 도서관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반적인 업무와 다르다며 처음 공론장을 진행할 때 ‘망망대해를 헤엄치는 느낌’(사서 C)이었다고 하였다. 공론장 사업이 도서관이 해왔던 서비스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론장을 담당하는 사서는 준비와 진행에서 부담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사서 역할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론장을 위한 기획, 준비, 운영에 이르는 데에는 사서들의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업무부담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있다. 사서들은 공부할 것이 너무 많고 기존의 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부담감이 높다고 지적하였다(사서 A, B, C).

새로운 분야의 의제를 개인적인 역량과 노력에 의존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 새로운 주제이고, 일상적인 다른 업무와 다른 사업들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하니 늘 시간이 부족하다.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읽어야 하고, 조사하고 학습하며, 주제와 관련하여 주민과 어떤 접점으로 만날지 고민해야 한다. 준비과정에서 사서의 학습과 성장이 일어나지만 엄청나게 힘들다. 절대적인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다(사서 C).

또한 공론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사회와의 접촉, 의사소통, 협력과 조정, 지역사회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파악 등 관련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론장을 운영할 경우 사서 스스로 역량 부족을 느껴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제기하였다. 사서들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두려웠다’(사서 D, E)고 하였

으나 공론장 사업을 매년 진행하면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대외관계와 시민 접촉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사서 D, E)고 하였다. 사서들은 공론장 운영에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힘들다고 호소하면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서의 학습과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난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사서 B, C, F). 공론장을 담당한 개별 사서들은 고민, 부담, 스트레스, 노력, 시행착오 등을 통해 도서관 공론장이라는 실체를 만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사서들의 운영 역량이 길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사서들은 공론장 운영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공론장의 주제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특정 지역주민의 참여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및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사서 B). 또한 공론장 사업의 중요도, 사서 역할에 대한 이해도에서 개별 사서들 간에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사서 A). 이 사업을 담당한 개별 사서의 관심과 열정, 역량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서관 공론장 운영과 관련한 사서 역할에 대한 인식 공유,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사서 B, C, F).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공론장 운영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론장의 핵심적 운영 단계를 도출하여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과정	내용	특성
1	공론장 의제 선정	- 지역사회 요구 조사(면담, 설문, 방문) -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한 의견수렴 - 의제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특성】 -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 도서관 운영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활성화 -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역량 개발, 정보서비스 제공력 강화 - 사서 학습 및 성장 - 전문 사서로서 효능감 【한계와 어려움】 - 기존 업무와의 차이 - 시간 부족 - 업무량 증가 - 사서의 업무 스트레스 - 매뉴얼 및 교육 부재 - 개별 사서의 역량에 의존
	↓		
2	의제 관련 자료개발	- 도서, 신문 기사, 통계, 영상 등 개발	
	↓		
3	의제 관련 정보서비스	- 자료 안내 및 정보제공 - 자료 요약 및 가공 - 자료 전시	
	↓		
4	사전프로그램	- 견학, 워크숍, 작가와의 만남, 특강 운영	
	↓		
5	홍보	- 도서관 내외 주민 질문 및 의견 게시판 설치 - 지역사회 관련 기관에 홍보	
	↓		
6	당일 공론장 진행	- 사회자, 전문가, 발제자	
	↓		
7	사후프로그램	- 후속 주민 모임,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모임, 체험프로그램, 워크숍, 후속 토론, 심화 강의	

〈그림〉 도서관 공론장 운영의 현행 모형

2. 도서관 공론장 운영 전략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공론장 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절에서는 도서관 공론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그리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공론장 운영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의 공론장 운영 전략은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공론장 운영의 현행 모형에서 드러난 주요 특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였으며, 이외 도서관 공론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전략을 제안하였다. 우선, 도서관 공론장의 의제는 주민의 관심과 요구, 지역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서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주민이 의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의제와 관련한 주민 요구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및 기관과 교류하여 지역사회 문제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연계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장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이지만 이를 사서가 지역사회를 파악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공론장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축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론장 의제에 따라 기획과 운영과정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의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공론장의 경우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 시민 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 학교 등과의 협력적 운영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해당 이슈와 관련한 지역 기관, 외부 전문가, 대학 등과 협력하여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하고 심층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다루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와 참여, 실천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의제의 선정과 조정 과정, 공론장의 운영에서 주민과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것은 공론장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여 도서관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도서관 공론장을 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론장의 주제를 바탕으로 주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정보자료의 개발과 안내, 전시,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는 공론장에서의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로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작금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할 때 도서관이 공론 주제와 관련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함은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토의를 추동하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서관 공론장에서 의제와 관련한 정보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정보제공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사서들은 공론장 운영과정을 지역사회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서는 지역사회 문제나 사회적 이슈, 주민의 관심을 중심으로 주민을 연결하여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고,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론장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역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대화’(Lankes, 2012)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편, 공론장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공론장의 가치와 성과를 축적하여 공유하고 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론장 사업을 통해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도서관과 사서, 지역사회 및 주민의 측면에서 나타난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규명하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공론장의 주민 참가율, 공론장과 연계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가율, 공론장 및 공론장과 연계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도서관 이용자 증가율, 기관과의 협력 건수, 의제 관련 참고서비스 건수, 참여한 주민들의 공론장 사업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 주민의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인식변화 등 공론장 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 공론장에서 나온 다양한 시민 의견을 기록하고,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지역사회의 지식 자산으로 축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론장 결과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지역 의회,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는 성과를 확보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성과 데이터들은 지역사회나 주민의 주목을 받을 뿐 아니라 타 공공도서관의 관심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공론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리고 타 공공도서관으로 공론장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공론장의 운영모델 및 전략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공론장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 도서관 공론장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론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론장 운영의 핵심 과정과 특성을 규명하여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현행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공론장 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도서관 공론장 운영은 공론장 의제 선정, 자료개발, 정보서비스, 사전프로그램, 홍보, 공론장 진행, 사후프로그램이라는 순차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서관 공론장에서 이뤄지는 시민 담론은 ‘일상생활에서 개별 주민의 고민과 관심’, ‘지역사회의 현안’,

‘사회적 이슈’라는 세 가지 주제로 유형화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개인의 고민과 관심을 비롯하여 지역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 공론장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서관 운영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시키며, 지역사회와의 접촉, 의사소통, 협력과 조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이 구현되며, 사서의 역량 개발로 이어져 전문가로서의 효능감이 향상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도서관의 공론장은 지역사회 정보요구 조사에서부터, 요구에 기반한 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시민의 대화와 토론 참여를 통한 공론 형성,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원으로 이어지는 활동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하여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2022년 IFLA-UNESCO의 공공도서관 선언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지역사회에 시민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새로운 역할이 공론장 운영과정에서 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론장의 운영과정에 지역사회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사서 역할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정보자료 수집과 제공이라는 역할에서 나아가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커뮤니티의 연결자이자 촉진자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사서의 역할 확대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서들이 도서관 공론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와 관심을 중심으로 대화, 학습, 참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개별 시민을 서로 연결하고, 시민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지역사회를 더 넓은 사회로 연결하는 접근점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Goulding, 2009).

한편, 공론장 운영이 개별 사서의 역량에 의존하여, 업무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한계와 어려움이 대두되었지만, 사서들이 공론장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길러지고, 전문 사서로서의 효능감이 높아졌다는 점은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론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사회와의 접촉, 의사소통, 협력과 조정, 지역사회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파악, 관련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관련 역량이 개발되고 전문가로서의 사서 역할이 구현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서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축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문 사서로서의 효능감이 고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성과는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이나 독서 공간을 넘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민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에 대한 연구와 현장에서의 운영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서관 공론장의 운영에 대한 경험적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 제시된 공론장 운영과정 및 전략은 공공도서관 현장의 공론장 구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공론장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이 높아져, 도서관 공론장을 현장에서 구현함으로써 그 성과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윤정, 노영희 (2023). 도서관의 소통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1), 97-120. <http://10.14699/kbiblia.2023.34.1.097>
- 김주영, 조다희, 최찬란 (2020).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대통령소속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 이연옥, 강영아 (2023).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139-160.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139>
- 이연옥, 강영아, 장덕현 (2023). 공공도서관 공론장 경험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1), 269-293. <http://10.16981/kliss.54.1.202303.269>
- 이정호 (2012).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253-278. <http://G704-000742.2012.23.3.007>
- 성북구립도서관 (2017). 2017 마을in수다. 서울: 성북문화재단.
- 성북구립도서관 (2018). 2018 마을in수다. 서울: 성북문화재단.
- 성북구립도서관 (2022). 2022 마을in수다. 서울: 성북문화재단.
- 성북문화재단 (2016). <마을in수다> 시범사업 계획(안). 서울: 성북문화재단.
- Aabø, S. & Audunson, R. (2012). Use of library space and the library as pla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2), 138-149.
- Aabø, S., Audunson, R., & Varheim, A. (2010). How do public libraries function as meeting plac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2(1), 16-26.
- Alstad, C. & Curry, A. (2003). Public space, public discourse, and public librar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3(1), 1-19.
- Audunson, R. (2005). The public library as a meeting-place in a multicultural and digital context: The necessity of low-intensive meeting-places. Journal of Documentation, 61(3), 429-441.
- Audunson, R. (2017). The public library: an arena for an enlightened and rational public sphere? The Case of Norway Information Research, 22(1), 1-13.
- Audunson, R., Aabø, S., Blomgren, R., Evjen, S., Jochumsen, H., Larsen, H., Rasmussen, C., Vårheim, A., Johnston, A., & Koizumi, M. (2019). Public libraries as an infrastructure for a sustainable public sphere: a comprehensiv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75(4), 773-790.
- Buschman, J. (2005). Libraries and the decline of public purposes. Public Library Quarterly,

- 24(1), 1-12.
- Buschman, J. (2020). The public sphere without democracy: some recent work in LIS. *Journal of Documentation*, 76(3), 769-783.
- Goulding, A. (2004). Libraries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6(1), 3-6.
- Goulding, A. (2009). Engaging with community engagement: public libraries and citizen involvement. *New Library World*, 110(1/2), 37-51.
-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IT Press. 한승완 역(2013).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파주: 나남.
- Hauser, G. (1999). *Vernacular Voices: The Rhetoric of Publics and Public Sphere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22.
- Johnston, J. & Audunson, R. (2019). Supporting immigrants' political integration through discussion and debate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1(1), 228-242.
- Kranich, N. (2012). Libraries and civic engagement. *Library and Book Trade Almanac*, 2012, 75-96.
- Lankes, R. D. (2016). *Expect More: Demanding Better Libraries for Today's Complex World* (2nd ed.). Jamesville, NY: Riland Publishing.
- Leckie, G. & Buschman, J. (2007). Space, place, and libraries: an introduction. In Buschman, J. & Leckie, G. Eds.. *The Library as Place: History, Community, and Culture*. Libraries.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3-25.
- Varheim, A. (2007). Social capital and public libraries: the need for researc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9(3), 416-428.
- Webster, F. (2014).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4th ed.). London: Routledge. 조동기 역(2016). *현대정보사회이론*. 파주: 나남.
- Widdersheim, M. & Koizumi, M. (2016). Conceptual modeling of the public sphere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Documentation*, 72(3), 591-610.
- Widdersheim, M. & Koizumi, M. (2017). A communication system approach to the problem of public library legitimac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9(1), 23-33.
- Willingham, T. (2008). Libraries as civic agents. *Public Library Quarterly*, 27(2), 97-110.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Juyoung, Jo, Dahee, & Choi, Chanran (2020). How Libraries Change Our Lives.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 Kim, Yoon Jeong & Noh, Younghee (2023). A study on defining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ir communicative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97-120. <http://10.14699/kbiblia.2023.34.1.097>
- Lee, Jeong-Ho (2012).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3), 253-278. <http://G704-000742.2012.23.3.007>
- Lee, Yeon Ok & Kang, Young Ah (2023). A study on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as community public sphe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139-160.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139>
- Lee, Yeon Ok, Kang, Young Ah, & Chang, Durk Hyun (2023). Exploring the impact of library public forums on users' perception of libraries: a study based on their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1), 269-293. <http://10.16981/kliiss.54.1.202303.269>
-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 Information Policy of Korea (2019). The 3rd Comprehensive Plan for Library Development(2019-2023).
-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2016). <Maeul in Suda> Pilot Project Plan. Seoul: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Seongbuk Public Library (2017). 2017 Maeul in Suda. Seoul: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Seongbuk Public Library (2018). 2018 Maeul in Suda. Seoul: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Seongbuk Public Library (2022). 2022 Maeul in Suda. Seoul: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